

# 祖國의 環境을 「다시」생각합니다

- L. A에서 생각하는 나의祖國 -



朴 昌 根

〈本會고문·(社)環境教育會회장〉

이 글은 본회 고문이시며, (社)환경교육회장이신 박昌根씨께서 캘리포니아주 의회의 초청으로 방미하셔서 보내주신 칼럼입니다. (編輯者 註)

1.

李龍雲 회장

안녕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곳을 떠날때(12월 5일) 대통령 선거의 열기로 온 나라안이 법석이었는데, 지금은 초읽기로 더욱 분주한 나날일 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쯤은 아마 어느 정도의 윤곽이 드러났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되었거나 잘되는 쪽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갖가지 핑크색 공약들이 나왔었는데, 그 공약이 空約이 되지 않기를 빕니다.

李회장!

연합회 年末 결산은 어느 정도의 赤字 폭으로 좁혀졌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처음으로 이곳 L.A 교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보호 특강」을 했습니다. (예정이 약간 바뀌어, 교민특강을 먼저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의 환경 돌아가는 꼴을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말이 나오질 않더군요. 혼한 말로, 외국에 나가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는 그런 Sentimentalism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환경은, 우리가 소화하고, 바로 잡아야 할 문제이고, 또한 이곳 사정이나 교민의 생각은 환경보호라는 형이상학적인 문제 보다는 훨씬 형이하학적인 문제에 관심이 깊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公害라는 개념에서 보다, 生態系 문제의 개념으로 Only one Earth의 환경보호를 약 1시간 40분 동안 이야기 했습니다. 즉, 지구 전반의 환경오염의 危害性을 고발하고, 환경보호의 當爲性을 호소하는...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지금, 이곳 우리 동포들이 관심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生存」입니다.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아이들을 성공시키는가? 그런 문제와 祖國의 대통령이 누가 되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말하자면,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절실한 그런 현실적인 「生存」 문제였습니다.

환경보호 문제, 대강은 알고 있으나, 지구 물리학적 측면의 환경문제 즉, 「온실효과」, 「오존층 파괴」, 「산성비」, 「사막화」 문제 등에 대하여서는 의외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실 L.A의 지진에 대하여서도, 그런일 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현실적인 사람들이라 환경오염 따위(?)는 당장 급하고 절실한 것은 아닐런지 모르겠으나, 그 절박한 사항을 나는 호소했고, 그들은 새로운 인식을 갖은듯 했습니다.

「한국의 公害 현상은?」 「核 문제는?」 「한강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정말 옛날같이 살아났는가?」 등의 쏟아지는 질문에, 되도록 나는 긍정적인, 희망적인 시각으로 대답했습니다. 내 책 「착각이외다」의 신랄한 비판과는 정 반대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곳 현실을 전합니다.

그러나, 과소비, 허영적인 소비에 의한 오염의 현상을 말했습니다. 즉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 더 많은 것의 추구와 세계적인 Brand, 세계적인 유행에 갇들여, 닭다리 하나 먹는 데도 로얄티 무는 것이 더 맛있다고 하는 일부 한심한 작태는 꼬집었습니다. 그러나, 잘 되어갈 것이라는 희망적 측면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이곳에 와 보니, 우리도 모르고 있는 한국의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식으로(?) 核문제라던가 그런 정도의 문제에 대해서만 알고 있을 뿐... 한국적 현실의 오염의 실상은 전혀라고 할 정도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2.

李회장!

이곳에 와 보니, 우리의 환경문제는 아무래도 제도적인 측면에서 야기되는 것이 더 크고, 복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공장의 오염원도 가정의 오염원도 공장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 행정 그리고 사회의 제도적 측면이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공장과 가정이 오

염을 알고도 저지르고는 있지만 그 모두가 기실 따져보면 제도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제도가 오염을 조장하고 있다고 할까요? 물론, 좋은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좋은 것을 위해 저질러지는 오염은 정책적인, 행정적인 즉 제도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환경을 보호해야했다면, '이게 아닌 것' 투성이인 것을 아마李회장도 알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과 성장 때문에 오염은 다음 문제로 밀려나고... 그래서 한국의 오염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은 몰라도 '88 올림픽 뒤의 우리의 환경은 매우 다양하게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감을 이곳에와 느낍니다. 조국에 있을 때는 오염의 와중에서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게 아우성치고 있었으나, 그 조국을 남의 나라인양(?) 멀리서 조망해 볼 때 한 마디로 기가 차 오르는 것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싫어도, 좋아도 우리가 살아야 될 조국의 환경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먼 미래를 볼 줄 아는 이곳, 미국 사람들의 의식을 수입해서 우리의 환경도 미래 지향적으로 다듬어 나가고 싶으며, 생각 같아서는 이곳의 철저한 환경보호 제도를 들여가, 오염된 조국의山河를 손질하고 싶습니다. 하여간 멀리서 다시 보는 조국의 환경은 짙은 스모그에 갇혀, 來日을 예견할 수 없는 그런 몰골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답답한 것입니다.

李회장.

「환경보호 365」라는 책자를 이곳에 두 권 갖고 왔지만, 차마 치부를 내 보이는 것 같아, 공개 못하고, 없애버렸습니다.

이곳엔 우리네와 같은公害가 없습니다. 적어도公衆道德이라는 개념에서 평가되는 그런 무질서, 어수선이 없다는 얘깁니다. 이곳엔 내 것 보다는 우리의 것인共有物이 존중되고, 이곳엔 우리의 생활이 보전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만든 「환경보호 365」는 우리의 어리석은 치부일 뿐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李회장.

이제, 한 해도 다 저물어 갑니다.

이 글 받을 때 쯤에는, 대통령 선거도 끝나고,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셨을텐데... 그래서 이긴자는 관용을, 진자는 승복을 해 평온해야 할 터인데...

걱정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건 정말 환경문제를 관심 가져주어야 할 터인데... 그것도 걱정입니다. 이 한 해는 정말 다사다난 했던 한 해였습니다.

年初, 필랜드 회의 차 출국하려던 직전, 「公害安全」의 강원민 사장이 헐뜯었다고 고소하고...(고소인은 분명히 「公害安全」이라는 잡지의 대표자였는데, 일부에서는 「公害安全」을 「公害對策」으로 오인하여, 「公害對策」에 "그럴수 있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는데, 정말 「公害對策」은 엉뚱하게도 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公害對策」은 우리나라 환경언론중에서 제일 역사가 길고, 가장 건실한 잡지인데... 아마 이름이 잘 알려진 덕에, 「公害安全」을

「公害対策」으로 잘못 알았던 모양입니다)

결국, 명예 훼손이 아니라고 사건은 끝났습니다만, 훗날 歴史는 오늘의 이 사건을 환경계의 야비하고 추잡한 작태로 볼 것이며, 또한 이 일을 꾸민 사람을... 어찌되었거나, 이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하여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필랜드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송구스럽게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에 처음으로 제정된 「환경대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말하자면, 굴욕과 영광을 한꺼번에 받은 한 해였다고 할까요?

李회장의 한 해도 다사다난 했던 것으로 압니다. 나 때문에 함께 「公害安全」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후반기에는 「환경보호 365」에 심혈을 기울여야 했고... 어찌면, 李회장에게는 소득없이 바빴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환경보호 인걸 어찌했습니까?

“아무래도 직장을 가져야지 정말 어려워 못 살겠습니다” 혼자, 그 크고 어려운 全國環境管理人 聯合會를 끌고 나가면서 힘들어 하는 李회장의 호소에...

“난 그렇게 18년을 살아 왔오!”하고 위로인지, 꾸중인지 모를 소리를 했지만... 어찌겠오? 그게 또한 환경보호의 길인 것을...

남들 같이 월급받고, 수당받고, 때에 맞춰 보너스도 받고, 휴가철에 맞춰 휴가 떠나고 그렇게 해서 하는 환경보호야 어디 긴박감이 있오? 우리같이,

없는 돈 만들어, 환경보호하는 것이 진짜 환경보호의 길이지...

그러나 정말 힘들게요!

미처도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하여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버티 봅시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밖에 더 하겠오?

그나 저나, 來年 부터는 회원들에게 한 달에 5백 원씩이라도 회비를 받도록 얘기해 보도록 하시오!

李회장 혼자 연합회 부채를 감당하기는 너무 어렵지 않소?! 하다 못해 회보 받아보는 값은 고사하고라도, 발송에 드는 우표값 등의 비용은 낼 줄 아는 회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오?

그리고, 來年 부터는 1년에 한 두번이라도 고문님을 모셔다 茶菓會라도 열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 聯合會의 會費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소.

李회장,

12월 송년 칼럼, 이렇게 편지로 대신 합니다. 내일부터, 예정에 따라 순회 강연을 시작해야 되는데, 난 자료를 전부 다시 꾸미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실에 부합되는 환경문제를 정리해 환경보호를 호소해야겠으니 말이오.

우리 지구의 모든 인류는 모두 한 형제라는 것을 이상하게도 이곳 미국에서 더욱 절감하는 하루였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어렵더라도 환경보호의 뜻에 마음 변치 마시길 바라오!

어려워도... 그래도, 보람되고, 좋은 일을하며, 살고 있다는 것은 천만다행이며, 축복입니다. ◀